

보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4

2021 April
Vol.539

또 다른 길을 준비하는
배움과 채움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Contents

2021 April
Vol.539

시선이 닿다

일상을 펼치다

세상을 품다

소식이 오다



COVER STORY

계절이 바뀐 교정시설을 가득히 채우는
꽃들처럼 수용자들의 꿈도 활짝
피어납니다. 수용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배운 기술과 지식은 새 희망을 채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수용자의 희망찬 봄날을
앞당기는 지원과 격려, 바로 교정공무원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 ZOOM IN 04
군산교도소

생각의 방향 10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따뜻한 마음

지금, 이 사람 12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
기모란 교수

별별 알고리즘 16
행복한 삶의 길을 만드는 채움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배움



부캐를 부탁해 18
달콤함 없은 '금손' 아빠의
화룡점정 베이킹

선배에게 듣다 22
먼저 다가가면 자부심이
돌아옵니다

교정인 원픽 26
군산에 안착한 휴식과 건강

힐링 메신저 30
한 도시에 깃든 시간 여행,
섬 탐방 군산

지구 초대석 34
용기 내서 용기 내세요!

물음의 소통 36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
'연봉'보다 '워라밸'



관계 반창고 38
공감과 경청이 상대에게
선물하는 것

알쓸꿀잡 40
봄맞이 세탁 노하우 편

머니 레시피 42
'소액 재테크'의 기본은 신용카드,
문턱 낮아진 공모주에도 관심을!

인문학 살롱 44
책 읽어 주는 시대,
오디오북과 클럽하우스

오늘의 건강 46
100세까지 똑똑하게,
두뇌 건강 이야기



대나무숲 일기 1 48
'안티 드론'을 아시나요?

대나무숲 일기 2 50
가족에 대한 반성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뉘우침

교정 리포트 52
주거지원 대상 출소자의
지원 기간 내 재범 위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②

카드로 읽는 교정 56
2020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교정 News 58

모범 공무원 소개 65

적극행정 우수사례 66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04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4월호 Vol.539
www.corrections.go.kr

Facebook: www.facebook.com/mojcor

Naver Blog: blog.naver.com/mojcor

YouTube: www.youtube.com/교도소24시

Kakao Story: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을 통해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군산교도소



군산교도소는 체계적인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수용자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관리



병역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체복무제도 구현

군산교도소는 빈틈없고 철저한 대체복무요원 관리와 인권 친화적인 대체복무 환경 구현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4명의 대체복무요원은 군산교도소 내 합숙 시설에서 36개월간 생활하며 공익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수용자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



군산교도소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은 장애인 수용자가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장애인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의 관리와 직업훈련 교사의 가르침 아래 제빵, 한식 조리, 귀금속 공예, 보석 가공 등 4개 직종에서 기술을 연마하며 미래의 희망을 밝혀 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따뜻한 마음

서정홍 시인의 '선배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돌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 이제 /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 할아버지 먼저 떠나보낸 / 마을 할머니들이 / 날마다 같이 잠을 자줍니다 // 혼인하고 예순해 넘도록 / 둘이 자다 혼자 자면 / 빈자리, 얼마나 쓸쓸하겠나며" 한 사람이 있다 간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슬픔을 겪어 본 할머니들은 매일 돌담 할머니를 찾아와 같이 잠을 자 줍니다. 너무 외롭지 말라고,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혼자 남은 돌담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 준 것은 마을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니다. 독일 중부 지방의 작은 마을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을 사람 중에서 누군가 아내나 남편을 잃으면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일주일 동안 부엌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장을 보러 가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 싶는데, 그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대신 장을 봐 주고 음식을 만들어 주고 잘 먹는지 보살펴 줬다는 겁니다. 부엌 출입 금지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배려였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홀로 남겨진 사람 곁에서 때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 주는 것으로, 때론 함께 울어 주는 것으로 그 슬픔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울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그림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호주의 카툰 작가 마이클 루닉의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는 방 하나 크기의 아주 커다란 유리병이 있습니다. 병 속에는 한 여자가 있고 밖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유리병에서 꺼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리를 깨는 건 위험합니다. 여자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눈물입니다. 남자는 병 입구 쪽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흘린 눈물은 한 방울 두 방울 병 속으로 떨어져 공간을 채웁니다.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밑바닥부터 조금씩 차오르던 눈물은 어느새 병의 절반을 채우고, 여자는 수영장 물 같은 그 눈물 위에 동동 떠서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앞으로도 한참을 거기 서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릴 겁니다. 자신의 눈물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때까지. 여자가 마침내 입구를 통과해 밖으로 나올 때까지. 남자의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든 슬픔이나 아픔, 고통의 눈물이든 남자는 여자를 위해 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울어 준다는 것, 그렇게 진심이 전해지는 눈물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 주곤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로 자란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흘린 눈물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삶을 바꾸기도 하고, 나 역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진실 된 눈물만큼이나 빈 마음을 채워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 이런 사랑은 어떤가요? 남자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이처럼 서툴기만 합니다. 그런 그를 곁에서 돌보며 엄마처럼, 친구처럼 함께했던 아내는 그의 음악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상처 많은 세상을 피해 집 안에서 은둔하던 남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연주를 시작하게 됐을 때, 아내는 매일 그의 연주를 들으러 갔습니다. 쉽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남자는 사랑이 가득 담긴 아내의 따뜻한 눈빛에 기대어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아내가 찾아오지 못하는 날이면 남자는 안절부절못하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남자는 전화를 끊지 않고 아내가 들을 수 있게 전화기를 그냥 놔둔 채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곁에 함께 있는 것처럼 안심이 되었겠죠.

연주를 다 마치고 나면 남자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서 아내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내는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여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다고. 음악 말고는 아는 게 없었던 남자, 남자의 음악이면 충분했던 여자.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바라는 대신 서로가 갖지 못한 것들을 채워 주며 살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주는 일이니까요.

누군가의 사랑과 진심어린 마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 줍니다.

그런데 그런 채움은 밖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한 음식,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일 등등.

이렇게 하나하나 좋은 것들을 채워 가는 삶,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아닐까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는

최고의 방안, 백신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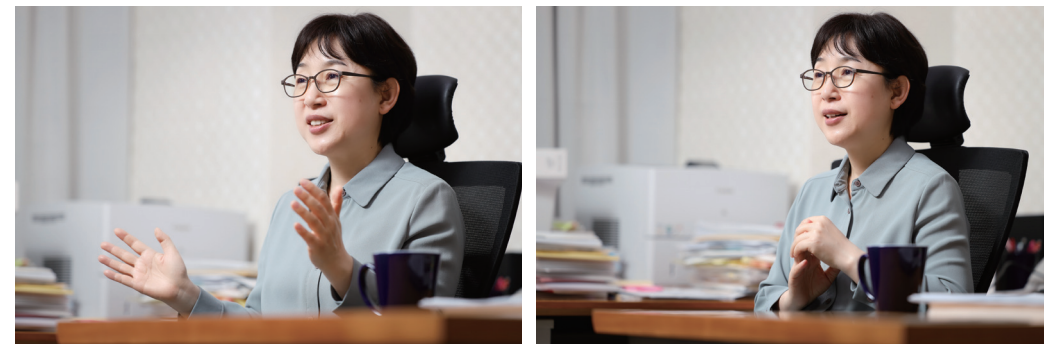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예방의학전문의
기모란 교수

불확실성이 짙은 시대에는 온갖 예측과
전망이 난무한다. 이런 때일수록 내공에서
다져진 통찰과 혜안으로 중심을 잡아 줄
전문가의 존재가 절실한 법. 코로나19 관련
뉴스에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할 때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
기모란 교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오는 4월 중순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 시설 종사자에
해당하는 교정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기모란 교수를 만나 백신 접종에 대한 생각과
향후 방역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실패의 경험에서 길어 올린 교훈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있는 기모란 교수 연구실에 가려면 ‘암’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수도 없이 지나쳐야 한다. 암 전문 병원이자 대학원이다 보니 거의 모든 표지판에 이 글자가 포함
된 까닭. 문득 암센터에 몸담은 교수와 감염병 전문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궁금해졌다.
“감염병 전문가가 암센터에 근무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이유는 명확해요.
암의 3분의 1 정도는 감염으로 발생해요. 암 예방법 중 하나는 감염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익숙한 기모란 교수는 ‘예방의학전문’이다. 한 해에 열
명 남짓 배출된다는 예방의학전문의는 전문의 중 유일하게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 병원을 개
업할 일이 없으니 소위 ‘돈 버는’ 의사도 아니다. 대신 예방의학전문의는 여느 의대생들이 전공 분
야를 파고들 때 시선과 관심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다. 임상은 기본, 사회학과 경제학을 배우며
방역 정책과 행정 등을 아우른다. 기모란 교수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방향성
을 제시하는 중책을 맡은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여기에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그만의 현
장 경험도 더해졌다. 그는 미국 앤아버의 미시간대학교에서 포닥(포스트닥터) 과정을 밟던 2003
년, 인근 캐나다에 사스가 크게 번지면서 감염병의 위험과 공포를 목격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메르스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더 깊숙하게 관여했다.



“사스가 퍼지던 당시 우리나라에 의심 환자는 있었지만 확진자는 1명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감염병 대처에 대한 실제 경험은 부재했죠.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린 메르스는 전 세계의 질타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 줬어요.”
병원 감염 관리 체계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성과 말고는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라는 기모란 교수. 그는 메르스 때의 숀한 실패의 경험 덕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현저히 줄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그
가 가장 먼저 제안해 감염 확산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방역 지침은 예방의학전문으로서 축
적한 이론에, 두 번의 감염병을 겪으며 터득한 고유한 경험이 시너지를 낸 결과인 것이다.



검사의 사각지대를 없앨 획기적인 시도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감염 수준이 낮을 뿐,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감염 경로가 명확했던 1, 2차 유행 때와 달리 3차 유행부터는 교회, 병원, 요양 시설 등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획기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해 감염에 취약한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3차 유행이 있었죠. 지역사회 감염 수준이 높아지면 집단 시설의 방역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다행이라면 교정시설의 경우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집단 시설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교정시설을 비롯한 감염에 취약한 집단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수검사가 이뤄지면서 감염률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집단 시설의 감염 위험은 물론이고 최근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기모란 교수의 설명이다.

“최근 감염양상을 보면 외곽의 집단시설이나 감염경로가 분명치 않은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요. 이는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선제 검사 대상을 넓히기엔 의료인 숫자가 제한적이죠. 의료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진단할 수 있는 키트의 무상보급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모란 교수는 교정시설 또한 업무상 수용자들과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교정공무원이 상당수인 만큼 수용자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백신 접종이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준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은 더 안전한 교정시설을 위한 선택

물론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이 실현되기 전과 달리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 시설 종사자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교정공무원들 또한 걱정과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에 저도 AZ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백신 접종 후 어느 정도의 통증은 몸에서 면역반응을 형성 중이라는 증거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같이 접종한 동료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접종 후 통증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축하를 건넬 정도죠. 또, 국내 백신 접종자 중 AZ 백신에서 이상 반응 신고가 많은 건 그만큼 분포가 많아서 생긴 당연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AZ 백신에 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럽약품청(EMA)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일제히 AZ 백신이 혈전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으며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결국은 불안감 해소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우선 접종을 했고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도 AZ 백신을 접종한 바 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걱정과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1차에 이어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지금 같은 전수검사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신 접종을 통해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차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기모란 교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어쩌면 이 같은 맥락의 코멘트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의 힘 있는 말 한마디는 결국에는 불안을 신뢰로 바꿔 우리를 좀 더 안전한 세상에 데려다 줄 것이다.



군산교도소 대체복무요원들은 공익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군산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채워 가고 있습니다. 군산교도소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동안 새로운 꿈과 행복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군산교도소 직원들은 장애인 수용자 곁에서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가르침으로 희망의 길을 안내합니다. 장애인 수용자가 건설한 사회구성원의 삶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밝은 미래로 인도합니다.

일상을 펼치다
● 부캐를 부탁해
글 이세호 사진 이정도

달콤함 없는 '금손' 아버지의

화룡점정 베이킹

대전교도소
교위 김시영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부와 명예보다 '금손'이 아닐까 싶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똑딱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말이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만들기 체험을 해 온 대전교도소 김시영 교위는 수많은 부모가 부러워하는 금손 아빠다.

※ 4월호 '부캐를 부탁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베이킹 공방을 단독 예약해 진행했습니다.



자녀와 추억 쌓는 자투리 시간 활용, '김밥 말기'가 '제과-제빵'으로 이어지다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유년기의 기억은 조각조각 가슴속에 남아 일평생 영향을 준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외출은 물론 가벼운 활동마저 제한되는 요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찾아보곤 한다. 대전교도소 김시영 교위도 집에서 자녀와 함께 김밥 말기, 밀가루 반죽으로 '올라프' 눈사람 만들기 등을 해 왔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자녀의 갈증을 채워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시영 교위가 소맷자락을 걷어붙인 이유다. 그는 월간 <교정> '부캐를 부탁해'를 통해 금손 베이킹에 도전하기로 했다. 평소 여가 시간에 틈틈이 프라모델과 나무조각 배를 만들어 온 그에게 '금손'이라는 별명은 딱 들어맞는다.

"교정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번 때 누워 있기만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서 여러 취미 생활을 시도해 보다가 제과·제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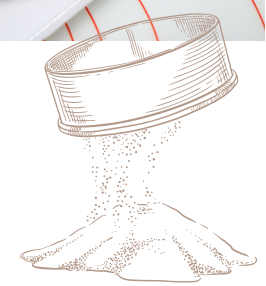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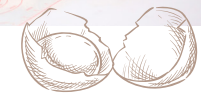
베이킹 도전에 대한 김시영 교위의 마음은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부인 송경남 씨와 동일했다. 송경남 씨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특별한 활동을 하기 어려웠는데 베이킹을 해 보고 싶다는 꿈을 이루게 돼 설렌다"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이번 '부캐를 부탁해'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맛있는 타르트지에 색을 더하는 베이킹

짤 주머니로 필링 채우고, 색색이 과일 올리고

아이들과 함께 베이킹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금손 아빠로 살아왔다고 한들,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을 당해 낼 시간은 없다. 그래서 여섯 살 수진 양과 네 살 서진 양이 재미있게 베이킹에 참여하도록 메뉴를 ‘타르트’로 선정했다. 알록달록 봄을 닮은 딸기 타르트와 춘곤증을 깨워 줄 상큼한 레몬 타르트 각각 1개씩과 미니 과일 타르트 9개가 이번에 만들어 볼 디저트다. 김시영 교위는 앞에 놓인 타르트지를 보고는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만들지 궁금하다”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김시영 교위의 부캐 이름은 금손 아빠라는 별명을 따 ‘금링’이라고 지었다. 가족을 향한 그의 마음이 금반지만큼이나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금링 김시영 교위는 가장 먼저 크림치즈 필링 만들기로 부캐의 모습을 보여 준다. 능숙하게 크림치즈에 딸기 시럽을 넣고 휘핑기로 저어 연붉은 딸기 필링을 만든다. 머릿속에 새긴 ‘휘핑기 방향은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베이킹 이론을 손으로 금방 실현해 내는 그다. 다음으로 김시영 교위는 짤 주머니에 필링을 넣은 뒤 타르트지 위에 짜낸다. 수진 양과 서진 양은 그런 아빠의 모습이 신기한 듯 타르트에 시선을 고정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못 이기겠다는 듯 김시영 교위는 두 딸에게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짤 주머니를 잡고 힘을 주면 된다”며 짤 주머니를 건넸다. 미니 타르트지 위에 필링을 채우는 수진 양과 서진 양은 달콤한 꿈을 꾸듯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타르트 베이킹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이유는 원하는 맛과 색감을 스스로 선택해 다채로운 디저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필링을 채운 타르트지에 딸기며 청포도, 체리를 얹은 가족들. 크기가 큰 딸기 타르트의 마무리는 역시 김시영 교위의 역할이다. 꼼꼼하고 섬세한 손길로 딸기를 하나하나 채워 없으니 숨죽여 있던 타르트에 생명이 움튼 듯했다.



개나리처럼 샛노란 타르트, 눈꽃이 쌓인 타르트

겨울과 봄, 가족의 시간을 담아내다


“레몬즙과 물, 설탕, 달걀을 냄비에 넣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저어 주세요.” 가족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타르트는 상큼한 매력이 돌아나는 레몬 타르트다. 이번에도 역시나 김시영 교위는 레몬 필링부터 만든다. 천천히 저다가 어느 정도 몽글몽글해졌을 때 버터와 젤라틴, 레몬 껍질을 넣어 녹인다. 금링이라는 부캐 이름에 맞게 이번에도 척척 미션을 완수하는 김시영 교위. 빈 타르트지 위에 레몬 필링을 채워 넣으니 봄꽃 개나리가 피어난 것 같은 비주얼로 변한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예쁘네요. 처음 해 보는 베이킹이라 걱정했는데 봄을 불러오는 타르트가 무사히 완성돼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든 타르트는 왠지 더 달콤해 보였다. 달콤한 사랑을 전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선물이 있을까. 여기에 눈꽃 같은 설렘을 한 스푼 더한다. 하얀 ‘데코 스노우’를 살살살 뿌리니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다. 달콤한 눈꽃이 타르트 위에 내리자마자 “우와” 하는 환호성이 터진다. 포장까지 마친 타르트를 받아 들고서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가족들. 뿌듯함과 기쁨이 묻어난 가족의 표정을

바라본 김시영 교위는 ‘부캐를 부탁해’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소감을 전한다. “쉬는 시간에 여가 활동을 하면 일상의 만족도 채워지고 자신감도 향상됩니다. 코로나19로 가족과 추억을 쌓기 어려웠는데요. 다른 교직원분들도 교정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여가 활동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타르트를 한 입 베어 물자 이내 느껴지는 딸기와 청포도의 과즙. 절로 기분 좋아지는 입안의 달콤함 덕분에 김시영 교위 가족의 하루는 더욱 알찼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먼저
 다가가면
 자부심이
 돌아옵니다



강경수(군산교도소 보안과 교감)

진심은 어디서든 통하기 마련이다.
 교도소도 마찬가지다.
 교정공무원이 먼저 수용자에게
 다가가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속 애기와 존중이 돌아오고,
 이는 곧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으로 치환된다.
 군산교도소 보안과 강경수 교감이
 30년 넘게 이 직업을 이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다.

Q. 교감님의 업무 중점 사항이 궁금합니다.

‘수용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수용 관리’가 저의 업무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에게 전하고 싶은 속 얘기가 있어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교정공무원이 먼저 나서서 수용자의 상황과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해당 교정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믿음과 존중이 꽃핍니다. 이러한 진심을 바탕으로 수용자 교화에 나서면 효과가 배가되고, 수용자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쉽죠. 한편 교정공무원은 수용자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욱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배들에게 ‘수용자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강조합니다. 저 또한 30년 넘게 이를 실천해 오고 있고요.

Q.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와 대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그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용자 신분일지라도 출소하면 우리의 이웃이자 사회의 일원이 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수용자들과 소통할 때 이웃사촌을 대하듯 항상 진심을 담아야 하고, 그래야만이 교정공무원들 또한 진심 어린 존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수용자들에게 일말의 거짓도 전하면 안 됩니다.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수용자들 마음에 배신감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썩든 부정적인 마음은 수용자들의 교화와 변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에 수용자와 소통할 때는 항상 사람 대 사람의 입장에서 진심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군산교도소 보안과에서 당직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강경수입니다. 1989년 10월에 입사한 뒤 광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순천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안과장 보좌 업무를 맡고 있고, 야간과 휴일에는 기관장 업무 대행으로서 수용 관리 및 교도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합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에 각각 직원 교육과 당직 보고를 시행해 소장님과 보안과장님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각종 상황 처리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Q. 30년 넘는 근무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관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석방으로 출소한 한 무기수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다시 입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형제들마저 그와 연을 끊었죠. 하지만 수용자를 교화해야 하는 교정공무원 입장에서 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도록 열심히 상담해 주고, 눈높이를 맞춰 주고, 그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갔을 때 서신으로 꾸준히 교화 지도를 했죠. 가끔씩 접견을 가서 안부를 묻기도 했구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모범 수로서 열심히 생활하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신을 믿는다는 것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숨은 속뜻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나름대로 교정공무원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Q. 교감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합니다.

1997년부터 2년여간 원에 담당을 맡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꽃과 나무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바깥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적한 주말농장에서 꽃과 나무, 관상용 닭을 기릅니다. 제가 원에 활동을 하다 보니 아내도 여기에 취미가 붙어서 요즘에는 함께 농장 일을 보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농장으로 가는 그 길이 무척 행복합니다. 이런 취미를 살려서 작년에는 원에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두 개나 취득했어요. 앞으로도 제 삶의 주변에 열심히 꽃과 나무를 심고 길러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Q. 후배 교정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업무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새로운 변화를 꾀할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보통 공무원은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답습하다 보면 조직의 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 입장에서 매사를 판단하기보다는, 수용자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들을 위한 변화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할 당시의 일을 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당시 일하지 않는 수용자들은 주간에 할 일이 없으니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책을 기증받아 복도에 비치하고 주간에 식탁을 펴 놓고 생활하게 했죠. 그러자 수용자들이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 폭행 사고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듯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미래에 대한 교감님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조직의 위아래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소통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과 보안과장님의 지시 사항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윗분들에게 잘 전달해 구성원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군산교도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술선수범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조직을 화합의 길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군산교도소에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군산에 안착한 휴식과 건강



지난 2월, 군산교도소에 54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배치됐다. 이들은 대체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며 공익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존 업무와 함께 대체복무요원 관리를 병행해야 하다 보니 직원들의 피로도가 한층 높아졌다. 군산교도소를 방문하며 직원들에게 휴식과 건강을 선사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한 이유다.



봄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변화, 마음 담은 선물로 응원합니다!

최근 군산교도소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 2월 5일 대전의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입소 교육을 마친 대체복무요원 54명이 군산교도소로 배치된 것이다. 군산교도소는 경비교도대가 쓰던 생활공간을 대체복무요원 합숙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직원 4명으로 이뤄진 대체복무팀을 꾸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6개월간 이곳에서 합숙하며 구내·외 시설 유지, 운영 지원, 간병, 직원 식당 지원 등의 공익 업무를 수행한다. 군산교도소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낯선 일이지만, 직원들은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모양새다. 대체복무요원들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들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모습이 사뭇 능숙하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조직을 받아들이고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은 군산교도소 직원들에게 다소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월간 <교정>은 군산교도소 직원들에게 일상의 여유와 활기찬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일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군산교도소 직원 모두가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면 더 좋겠다'는 총무과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이후 도착한 선물을 살펴본 총무과 김민수 교위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물품이 도착해 뿌듯하다"며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취재진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음은 물론이다.





봄날의 나른함을 깨우다
‘커피믹스’

군산교도소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봄날의 나른함과 대체복무제 시행에 따라 추가된 여러 가지 업무는 때때로 직원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다. 그럴 때 커피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상의 동반자다. 전 직원이 고루 마실 수 있는 커피믹스를 선물 목록에 올려놓은 배경이다.

커피믹스는 정신을 깨우는 카페인 성분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달콤함으로 스트레스 및 공복감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를 증명하듯 총무과를 이끌어 가는 이영성 교정관은 “업무 사이 사이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는지 모른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총무과 유광선 교위도 “커피를 마시는 동안 취하는 잠깐의 휴식 덕분에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커피 한잔은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총무과 박효심 교감은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팀워크를 다진다”며 커피믹스가 단순한 차 한 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정인 원픽’을 통해 선물한 커피믹스는 군산교도소의 전 부서에 고루 전달돼 직원들의 하루를 틈틈이 응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과 함께 피어나는 웃음꽃
‘간식 박스’

명절이나 새해 같은 특별한 날 부모님 손에 들려 있던 종합과자선물세트의 추억, 누구나 하나쯤은 품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다채로운 간식거리는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에 집중하다가 문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별 이유 없이 입이 심심할 때, 사람들과 둘러앉아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으레 간식 쪽으로 손을 뻗는다. 이는 군산교도소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바로 여러 주전부리가 한데 들어 있는 간식 박스다. 아니나 다를까, 간식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은 직원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총무과 김대우 교도가 “얼마 만에 보는 과자 세트인지 모르겠다”며 즐거워하자, 직업훈련과 문정현 교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분간 ‘당 충전’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맞장구쳤다. 역시 출출할 때는 새콤달콤한 과자가 딱이다.

군산교도소는 간식 박스가 직장 분위기를 한층 밝혀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각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곳에 모여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번 선물이 직원들 간의 대화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여기에 믹스커피 한 잔까지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휴식 시간이 완성될 것이다. 각 부서에서 간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건강관리, 이제 간편하고 똑똑하게
‘인바디 체중계’

높아지는 기온과 함께 옷이 점점 얇아지면서 체중 및 건강관리에 돌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총무과 서용식 교감은 “운동을 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몸을 관리하려는 직원이 많다”며 인바디 체중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반적인 체중계는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전달된 인바디 체중계는 몸무게를 포함한 12가지 신체 데이터를 두루 측정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스마트폰에 인바디 체중계와 연동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네 귀퉁이의 금속판에 발을 올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체중, BMI, 지방량, 근육량, 비만도, 신체 나이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수치가 바로 측정된다. 이제 인바디를 재기 위해 굳이 피트니스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아울러 측정된 결과값을 누적해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한눈에 보여 준다. 또한 이를 ‘구글 피트니스’, ‘ios 건강’ 앱과 연동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 더욱 좋다.

인바디 체중계를 시연한 총무과 최규철 교감이 “교도소 직원들은 직무 특성상 체력이 매우 중요한데, 인바디 체중계로 간편하고 똑똑하게 몸을 관리할 수 있으니 좋다”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군산교도소는 인바디 체중계 2대를 남녀 휴게실에 각각 비치해 전 직원의 건강관리를 ‘스마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은 시간 여행의 도시다. 원도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가옥과 건축물, 빛바랜 골목들이 남아 있다.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외곽으로 달리면 섬들의 군락인 고군산군도가 펼쳐진다. 군산교도소는 '바다와 향수의 도시' 군산의 길목에 자리해 있다.



한 도시에 깃든 시간 여행, 섬 탐방 군산

과거의 시간을 간직한 골목과 공간

군산교도소는 군산의 시간 여행과 궤적을 같이한다. 월명산 아래 원도심 곳곳에는 옛 흔적이 묻어난다. 군산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당시 쌀 수탈을 위한 조계지(외국인 거주지)로 쓰인 시린 과거를 지닌 도시다. 신흥동과 월명동 일대에는 일본풍 집들이 지난날을 투영하며 남아 있다.

신흥동 일본인 가옥(히로쓰 가옥)은 복도와 다다미방, 일본 정원이 고스란히 보존된 국가등록문화재다. 일본인 포목상이 지은 2층 목조주택에서 영화 <타짜>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를 촬영했다. 인근에는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가 위치해 있으며, 적산가옥 고우당은 소담스러운 정원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다.

이 일대 골목은 산책하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소박한 카페와 숙소도 옹기종기 이어진다. 골목을 배회하다 보면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된 '초원사진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영화 속 한석규가 운영했던 사진관은 옛 모습 그대로 인증 사진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온기 짙은 근대 문화유산 거리

군산은 바다 향기가 묻어나는 도시다. 원도심에서 내려 군산 내항과 맞닿은 거리에서 근대 건축물들과 조우한다. 군산 바다와 나란히 달리는 해망로(장미동) 일대는 근대 문화유산 거리가 조성돼 있다. 옛 군산세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 등 고풍스러운 건물은 100년 세월을 차곡차곡 담아낸다.

붉은색 벽돌 건물에 동판을 올린 옛 군산세관 본관은 철도서울역사, 한국은행 본점과 함께 국내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로 꼽히는 곳이다. 본관 뒤편에는 세관 창고를 리모델링한 인문학 카페가 문을 열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는 군산의 세월이 간직돼 있으며 1930년대 변화가를 재현한 체험 공간은 특히 인기가 높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유희 주점으로 방치돼 오다가 근대건축관으로 탈바꿈했다. 구 일본 제18은행 건물은 레트로 분위기의 카페를 동반한 근대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군산 내항 일대는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경암동 철길마을 교복 나들이

경암동 철길마을은 세대를 뛰어넘는 추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신문 용지를 나르기 위해 공장과 군산역 사이에 2.5km 철로가 개설됐는데, 1970년대 그 주변에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며 서민들이 거주했다. 2008년 철길이 닫히고 황량해진 공간에 상점들이 들어서며 온기를 되찾고 있다.

경암동 철길마을은 주말이면 복적거리인 군산의 명소로 변신 중이다. 방문객들은 친구들과 옛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데 여념이 없다. 폐철로에는 교복 대여소와 흑백사진을 촬영해주는 스튜디오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옛 군것질거리인 달고나, 뽑기 등을 직접 만들어 먹는 신나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세대 차이가 나는 군산교도소 선·후배 직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만화 속 주인공들이 담장을 채우고, 철로 종착점에는 열차 조형물이 옛 군산으로의 추억 여행을 돕는다.



수십 년 세월의 별미 '군산 짜장면'

군산 음식 역시 추억과 함께 맛본다. 군산의 오래된 별미 중 하나가 짜장면으로 주말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물짜장, 고추짜장, 부추짜장, 볶음짜장 등 종류도 다채롭다.



군산 짜장면의 세월을 자랑하는 곳은 '빈해원'이다.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중화요리 식당으로, 식당 안은 중화권 영화에 나올 법한 이국적이고 앤티크한 분위기다. 60년을 넘어섰으며 각종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빈해원 짜장면은 전분 소스가 많이 들어가 걸쭉한 것이 특징이다. 전라북도식 짜장면으로, 일명 '물짜장'으로 불린다.

군산 '지린상'은 눈물을 속 빼놓을 정도로 매운 고추짜장으로 명성이 높다. '성누정'은 면에 부추가 들어간 25년 세월의 부추짜장을 테이블 위에 올린다. '국제반점'과 '복성루'의 볶음짜장, 짬뽕도 군산의 맛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 국내 최장수 빵집인 이성당과 영국빵집 등 빵집 투어도 군산 니들이객의 단골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섬과 물이 연결된 고군산군도

최근 군산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곳은 고군산군도다. 섬과 물이 다리로 연결되면서 2층 버스를 타고 고군산군도 깊숙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고군산군도로 가는 길목에는 바다와 간척지가 드넓게 펼쳐진다.

고군산군도는 57개의 유·무인도로 이뤄진 섬의 군락이다. '신선이 노닐던 섬'인 선유도가 대표 섬이고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 등 수려한 해변과 어촌 풍경을 간직한 섬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고군산대교 완공으로 신시도와 무녀도가 연결되며 고군산군도는 물과 한 몸이 됐다.

장자도와 이어진 대장도 대장봉(142m)에 오르면 섬과 다리, 포구와 해변이 어우러진 고군산군도가 한눈에 담긴다. 장자도 앞바다는 예전 조기잡이 고깃배들이 밤에 불을 켜고 장관을 이뤘던 '장자어화'의 현장이다.

선유도 명사십리 자전거 하이킹

고군산군도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둘러보아야 진면목이 전해진다. 선유도에 접어들면 명사십리 해변에 새롭게 솟은 전망대와 집라인이 시선을 끈다. 집라인을 타면 명사십리 해변을 가로질러 솔섬까지 700m를 새처럼 날 수 있다. 명사십리 해변의 일몰은 '선유나조'로 불리며 고군산군도의 으뜸 풍경으로 꼽힌다.

명사십리 해변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선유도의 섬 골목을 누비며 기도등대를 방문하고 남악리마을을 몽돌 해변에도 들러 본다. 사람들이 밀려드는 명사십리 해변과는 또 다른 섬마을 풍경이 전해진다.

무녀도 끝자락의 작은 섬인 쥐똥섬은 간조 때 물이 빠지면 바닷길이 드러나는 곳으로 고군산대교 옆에 자리했다. 쥐똥섬 앞에는 섬 주민들이 운영하는 스쿨버스를 개조한 노란색 카페버스가 봄날의 운치를 더한다.



지구를 지키는 작은 습관, **용기** courage **내서 용기** container **내세요!**

루게릭병을 알리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까지 공공 캠페인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지구를 지키자는 취지의 챌린지가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용기내 챌린지'를 소개한다.

아파하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용기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 있다. 바로 비대면 생활로 배달과 포장 음식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용기내 챌린지'가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용기내 챌린지'란 음식이나 식자재를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일회용품 포장 없이 구매하는 캠페인이다. 음식을 구매할 때 용기(courage)를 내서 용기(container)에 담아 온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품이 아닌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담아 온 다음 자신의 SNS에 인증 사진과 #용기내챌린지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개인의 시작에서 정부 참여로 발전해 더욱 활발해지는 환경 지키기 운동

연예계의 대표적인 에코브리티(ecobriety,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유명인을 뜻하는 신조어)로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류준열 씨는 지난해 자신의 SNS를 통해 '용기내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화제가 됐다. 또한 유튜브(YouTube)에서도 '용기내 챌린지' 관련 영상이 눈에 자주 띄면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운동의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1월 릴레이 캠페인 '고고 챌린지'를 시작했다. '고고 챌린지'는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약속하는 탈(脫)플라스틱 운동이다. 지목된 사람들이 각각 3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재진행형으로 꾸준히 퍼져 나가고 있다.

챌린지를 넘어 새로운 환경 문화로 정착돼 모든 사람이 만들어 가는 더 나은 세상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1일 배출량은 84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비닐 폐기물 1일 배출량은 95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량에 경각심을 가진 개인과 정부의 환경 운동 참여에 이어, 기업들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회용 빨대와 비닐 쇼핑백 사용을 줄이는 등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개인, 기업,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하나의 환경 문화로 정착된다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많다. 다만 조금의 부지런함과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장바구니와 다회용 용기, 텀블러 등을 챙기는 용기로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데 함께하길 권해 본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 사용하기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키기 어려운 텀블러 사용하기부터 시작해 보자. 커피와 같은 음료를 주문하거나 마실 때 개인 텀블러를 활용하자. 또한 종이나 실리콘, 스테인리스 빨대를 이용하는 등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활용하기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비닐봉지는 썩는 데에만 1,000년 이상이 걸린다. 불에 태우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 보자.

계면활성제 없는 치약, 샴푸 사용하기

대부분의 치약과 샴푸에 포함된 합성 계면활성제 성분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햇빛을 차단시켜 수생식물의 번식을 방해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환경을 위해 계면활성제 성분이 없거나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샴푸를 사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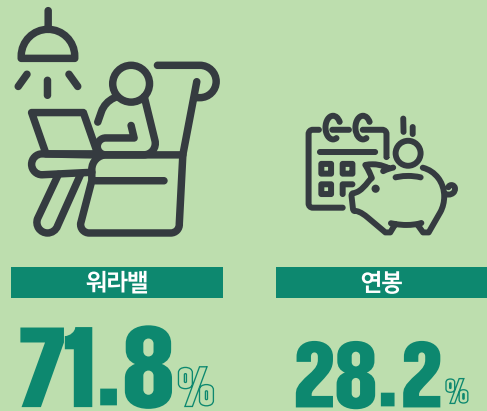
교정공무원이 국민 곁에 있음을 알리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위에 소개된 '용기내 챌린지', '고고 챌린지' 등 친환경 캠페인 운동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 '연봉'보다 '워라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워커홀릭' 직장인들에게 가끔 무기력함과 피로가 몰려온다. 업무에만 몰두한 채 자기 생활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것이다. 직장인 사이에서 '여가 시간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워라밸', 즉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직장 생활 시 선호하는 것



직장 생활에서 우선시하는 가치 71.8%, '워라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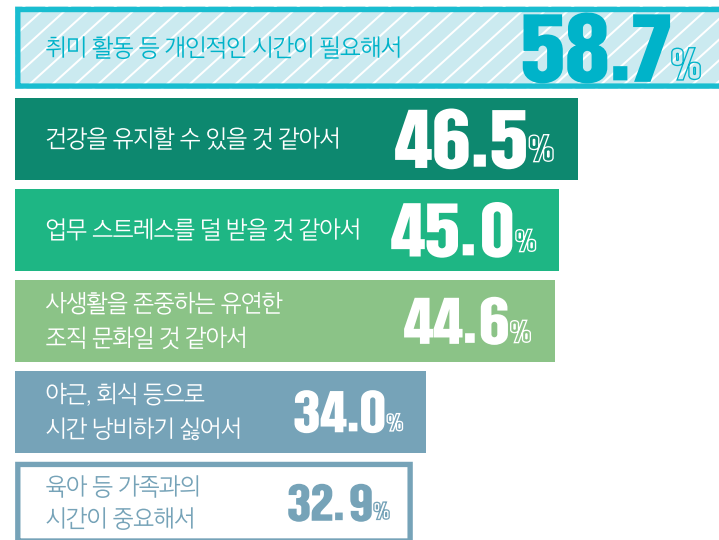
'양보다 질'이라는 말을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오늘날, '가심비'는 '가성비'보다 더 큰 만족을 주고, '미니멀리즘'은 '맥시멀리즘'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선물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추구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적용된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남녀 1,8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인, 개인 시간은 적지만 연봉이 높은 직장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개인 생활과 '건강' 워라밸을 추구하는 주된 이유

성인 남녀가 직장 선택의 조건으로 '워라밸'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미 활동 등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58.7%, 복수 응답)로 나타났다. 그다음 중요한 이유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46.5%)였다. 단순히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과로로 건강을 해치는 것을 경계하고자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교정공무원들의 상황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다.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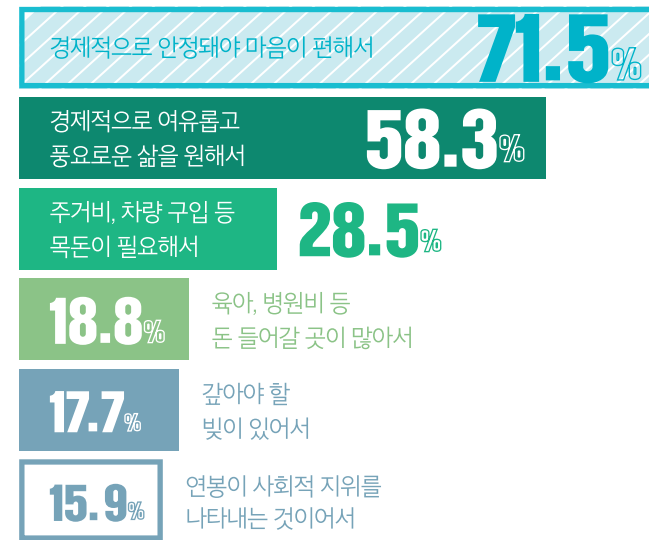
4교대 근무 교정공무원, 워라밸 이루려면 생체리듬 균형 유지해야

직장인이 워라밸을 누리려면 개인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여가 시간이 많다 한들 다른 취미 생활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교대 근무를 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건강관리에 더욱 더 유의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생체리듬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공무원은 여가 시간에 체력 향상 운동을 꾸준히 하고, 무엇보다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등 생체리듬을 관리하면 워라밸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 여유'와 '삶의 유지' 직장 생활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 가치

아무리 워라밸이 중요하다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경제적 안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워라밸을 추구하기 어렵더라도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택하겠다고 말한 이들의 상당수(71.5%)는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마음이 편해서'라고 답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58.3%)이라는 답변도 절반 이상이였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워라밸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연결된다. 워라밸을 이루는 삶의 이유가 '삶의 여유'인데, 안정된 경제 상황이 곧 삶의 여유를 가져오기 마련이니 말이다. 이를 볼 때 뻘뻘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의 바람은 연봉과 워라밸, 두 선택지 모두에 드러난다.

워라밸보다 높은 연봉을 선택한 이유(복수 응답)



교정공무원이 직장 생활에서 추구하는 가치 Check List

교정공무원의 근무 형태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좋은 반면, 자칫 건강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교정공무원으로의 삶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수많은 이들.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속마음과 사명감을 살펴볼 때다

1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연봉
- 워라밸
- 사명감
- 적성과 흥미
- 사회적 지위

2 교정공무원으로의 삶을 선택한(또는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정성
- 사회적·개인적 보람
- 동료와 가족의 지지
- 자유 시간 확보

3 '삶의 여유'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공감과 경청이 상대에게 선물하는 것

많이 말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다

상담실에서 고은 씨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 놓았다. 화가 나거나 흥분해서가 아니라 대화 습관이 원래 그랬다. 게다가 상담 도중 자주 내 말을 끊으며 자기 말을 했다. 그런 말 습관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경험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말이 빨라졌던 것이다.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 놓는다고 상대가 내 말을 모두 듣지는 않는다. 자신은 자기 생각을 있는 힘껏 전하더라도 상대의 마음과 귀는 이미 닫혔을 때가 많다. 결국 좋은 대화는 공감하며 서로 조율하는 일이다. 즐겁고 유익한 대화에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호응하는 것이다. 대화 능력은 동조를 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동조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카멜레온 되기'가 있다. 몸 색깔을 주변에 맞추는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말에 따라 표정과 동작을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

공감 꽃이 피었습니다

'카멜레온 되기'는 요즘 말로 리액션(reaction)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카멜레온처럼 행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감 회로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힘들다. 인간에게는 다른 영장류는 발달하지 못한 거울 뉴런이라는 뇌 영역이 있다. 거울 뉴런 때문에 누군가의 언행과 표정을 보기만 해도 나의 뇌에는 그것이 그대로 복사돼 나타난다. 살면서 거울 뉴런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통제받고 스스로 통제했다면 카멜레온처럼 되기가 힘들 것이다. 필자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며 팔짱 끼고 지켜보거나 냉담하게 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반응해 보라고 조언한다. 특히 TV를 보며 한 출연자를 점찍어 그 언행을 따라 하거나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해 보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공감적인 리액션을 연습해 보는 것이다.

공감적인 관계를 위한 경청의 중요성

공감적인 말과 리액션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상대와 공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물론 공감적인 말을 연습하는 일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다. 뿌리 깊은 말 습관이 공감적으로, 정서적으로 대화하려는 자신을 막아서기 때문이다. 대화 실패, 관계 실패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말 습관을 탓할 때가 많다. 말 습관을 공감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기 바란다.

우선 자신의 '문제적 말투'에 대한 냉정한 자각이 필요하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변화도 힘들다. 대화할 때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말 습관을 기록하고 나중에 듣기를 반복하기 바란다.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알 것이다. 이런 게 문제로구나 느끼고, 고칠 마음을 단단히 품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말할 때 '너는'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는'으로 시작하는 연습을 해 보기 바란다. '너는'으로 말하면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말로 변하기 쉽다.

또 자신의 단어 사용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 대화에서 긍정적인 단어를 자주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기분 좋은, 기쁜, 흐뭇한, 짜릿한, 반가운, 끝내주는, 정다운, 그리운, 활기찬, 생생한, 든든한, 자신만만' 같은 긍정적 단어를 의식적으로 대화에 써 보자. 좋은 관계는 긍정적 감정 표현이 더 많을 때 가능하다.

경청은 최선의 공감

가끔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 주는 장면을 보며 울컥할 때가 있다. 그 모습에서 공감과 경청의 마음을 읽기 때문이다. 근사한 표현이나 미사여구보다 때로 묵묵하게 상대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상대에게 공감하고 더 위로가 되기도 한다. 우선 자신의 표정부터 연습해 보자. 만약 어떤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싶을 때 자신의 표정이나 몸동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뒤센(Duchenne) 미소' 짓기 연습을 해 보는 것이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의 종류는 대략 18가지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다른 17가지는 다른 의도를 가진 가짜 웃음이고, 얼굴 근육 중 안륜근을 움직이며 진심으로 기뻐서 짓는 '뒤센 미소'만이 진짜 웃음이다. '뒤센 미소' 짓기 연습을 위해서는 마음속에 기쁜 생각이 많아야 하고, 순간순간 기쁜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가끔 동영상에서 부드럽게, 공감적으로 말하는 장면을 접하면 따라 흉내 내며 연습해 보자.

말없이 그저 듣는다고 경청은 아니다. 자신의 신체 언어, 비언어 표현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가 내가 경청하는지 알아채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대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콘택트(Eye contact)하는 연습을 해 보기 바란다. 대화 도중 자주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다. 상대의 말에 끼어들고 싶고 말을 자르고 싶은 충동을 가라앉혀 줄 것이다.

그리고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 주거나 상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배워 보는 것도 좋다. 가령 "그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운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 같은 말이 그런 것이다. 이런 표현을 찾기 힘들다면 책을 보고서라도 배워야 한다. 최근 말하기 연습에 관한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으니 하루쯤 서점을 둘러 볼 일이다.





알쓸꿀잡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봄맞이 세탁 노하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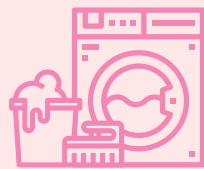
봄기운이 차츰 올라오는 지금,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 낼 때가 됐다. 추운 겨울 동안 우리를 풀어 준 두꺼운 의류와 침구류를 정리하고 봄맞이 옷을 세탁할 시간이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없애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세탁 꿀팁! 겨울 의류와 침구류를 깨끗하게 보관하고, 봄옷을 상쾌하게 입을 수 있는 세탁 노하우를 소개한다.

오래오래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의류와 침구류 세탁법

1

청결한 세탁을 위해 세탁기 청소부터 시작

겨울 의류와 침구류를 열심히 세탁하더라도 세탁기가 청결하지 않다면 세탁물의 먼지와 세균은 그대로일 것이다. 세탁조에는 각종 오염물과 세제 찌꺼기가 남아 있기 쉬워 세균과 곰팡이 등이 서식하기 좋은 공간이다. 따라서 세탁을 시작하기 전에 세탁조 클리너 등으로 세탁기 청소부터 할 필요가 있다.



2

패딩·구스다운 점퍼, 중성세제로 손세탁

세탁소에 맡기는 드라이클리닝은 기름때를 빼 주는 세탁 방법이다. 패딩이나 구스다운 점퍼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깃털의 기름 성분도 함께 제거돼 보온성과 단열성이 떨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손세탁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일 세탁기를 쓴다면 중성세제를 넣어 단독으로 빼는 것이 좋다. 이때 패딩을 운동화 끈 등으로 3등분해 묶은 뒤 세탁하면 충전재가 한쪽으로 뭉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스키복·등산복 등 기능성 의류는 울세탁

기능성 의류는 되도록 손세탁하는 것이 좋으나 세탁기를 사용하면 울세탁에 맞추고 세탁하길 권한다. 또한 뜨거운 물에 넣어 두면 옷이 망가지고 기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30~40℃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해야 한다. 섬유 유연제는 기능성 의류의 발수성과 투습성을 손상시키고, 표백제는 기능성 막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세탁과 보관 모두 중요한 코트와 재킷

겨울 코트와 재킷은 대부분 울 소재인 경우가 많은데, 울은 그 특성상 세탁을 하면 할수록 옷감이 마모돼 보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입어야 한다. 세탁할 때는 드라이클리닝을 추천한다.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남은 기름기를 완전히 없애고, 비닐이 아닌 부직포나 천으로 된 커버를 씌워 보관해야 한다.



봄철 미세먼지까지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

미세먼지로 뒤덮인 옷은 애벌빨래부터

봄철에는 미세먼지 유입이 잦기 때문에 가급적 옷 세탁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했다면 각종 오염물이 옷에 붙을 수밖에 없으므로 세탁 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먼저 입었던 옷을 털어 주거나 테이프클리너를 사용해 먼지를 제거한 다음 세탁한다. 또한 되도록 겉옷과 속옷은 분리해서 빨고, 본세탁 전에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애벌빨래를 하는 것이 좋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실내 건조하기

빨래는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봄철에는 미세먼지 탓에 창문을 열어 놓기 힘들다. 따라서 창문은 닫아 놓고 햇빛이 가장 잘 비치는 곳에서 건조한다. 세탁물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자연적인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젖은 세탁물이 실내 습도를 높여 줘 봄철에 건조해지는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숨어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 침구류 및 커튼

미세먼지는 실내에도 존재한다. 특히 침구류나 커튼은 실내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하다. 우리 몸에 달라붙은 미세한 오염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침구류에 계속 축적된다. 또 커튼은 실내 환기 시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하다. 하지만 침구류와 커튼을 매번 세탁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평소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다. 침구류나 커튼에 물을 뿌린 다음 스타킹을 씌운 빈 페트병으로 쓸어내려 마찰력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다.



섬유 유연제 사용으로 미세먼지 접근 방지

정전기 제거 효과가 있는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면 옷의 마찰을 줄여 미세먼지가 옷에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봄철 건조해진 피부가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있는 옷과 닿으면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옷 세탁 시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면 섬유와 피부의 마찰을 줄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소금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소금은 살균 작용을 해 세탁 시 소금을 넣으면 세탁물 속 세균까지 소독할 수 있어 미세먼지도 쉽게 제거 가능하다.



봄철 더욱 중요한 아기 옷 세탁

아기 옷은 손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손세탁이 어려울 경우 가급적 어른 옷과 따로 세탁해야 한다.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진 아기라면 세제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40℃ 정도의 미온수에 세제는 평소의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해 세탁한다. 산소계 표백제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피부가 민감한 아기의 옷을 세탁하기 좋다.

‘소액 재테크’의 기본은 신용카드, 문턱 낮아진 공모주에도 관심을!

여신금융협회가 2020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제활동인구 2,819만 명은 평균 3.9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1인당 카드 결제액은 현금서비스, 카드를 합쳐 연 2,860만 원에 이른다. 협회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포함해 전체 개인 소비의 90%가 카드를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우리의 통장을 잡아먹는 존재가 바로 카드다. 이 때문에 재테크를 하든 합리적인 소비를 목표로 하든, 가장 먼저 카드부터 파악해야 한다. 카드와 계좌 발급부터 시작해 소액 재테크의 영역으로 관심 분야를 넓혀 가는 것을 추천한다.



내게 꼭 맞는 카드를 찾아보자

사실 적지 않은 카드 이용자가 별다른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카드를 쓴다.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지만 미국엔 유사 논문이 있는데 최소 약 27%의 이용자가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충성적 경향’이 크다고 한다. 본인이 소유한 카드의 혜택을 알기는 하지만 아주 민감하지 않은 준(準)충성 고객층까지 감안하면 약 80%가 큰 고민 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고민하고 써 봐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테크로 성공하고 싶다면 약 착각해야 한다. 카드나 계좌를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은 카드부터 수술하자. 본인의 소비 성향에 맞는 카드를 찾아 결제액의 1~2%만 돌려받는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연 28만~57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소비액 대비 돌려받는 금액을 흔히 ‘피킹(picking)률’이라고 하는데, 능력자들은 5% 이상의 피킹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뱅크샐러드 앱 등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대부분 카드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네이버페이의 ‘혜택’ 페이지나 토스의 카드 발급 페이지, 카카오페이 카드 발급란 등을 보면 신규 고객 유치 캠페인으로 처음 카드를 발급할 때 약 8만~15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캐시백까지 받으면 기쁨이 배가될 것이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간혹 카드 혜택에 함몰돼 혜택받는 금액만 고려하다가 필요치 않은 과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카드는 안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앱테크에 관심 있다면 뽀뿌 재테크포럼 추천

계좌 개설 또한 마찬가지다. 증권 계좌나 저축은행 계좌는 신규 발급 이벤트를 많이 하고 이율 또한 시중은행보다는 높으니 꼭 개설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나 저축은행 계좌를 만들 때는 카드 발급 때처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고금리 특판 정보를 얻고 싶다면 ‘재테크의 여왕 슈앤슈’와 같은 블로그나 ‘뽀뿌 재테크포럼’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곳이 언론 기사보다 빠르다. 참고로 3월 초 기준으로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등에서 5~6%대 적금 특판을 시행하고 있다.

뽀뿌 재테크포럼은 각종 앱테크와 관련한 정보가 많이 올라온다. 앱테크란 앱을 깔아 두고 광고를 보거나 하면 소액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돈 버는 앱’이다. 페이코, 리브메이트, 캐시슬라이드, 머지포인트 등 대부분 일반인은 모르는 앱테크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 주변의 뽀뿌 이용자들은 앱테크만 잘해도 월 수십만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하니, 관심 가져 보길 권한다. 그러나 앱테크란 것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과도하게 신경 쓰다 보면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증권사 계좌 개설해 공모주 도전

필자가 꼭 추천하고 싶은 재테크 방법은 바로 증권사 계좌를 통한 공모주다. 주식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접하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공모주다. 과거에는 고액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어 현금이 없는 사람은 하기 어려웠는데, 지난해 말 정부에서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하면서 소액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균등배정이란 전체 공모 물량의 절반을 계좌 수대로 나눠 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큰 인기를 끈 공모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증권사마다 10주씩만 청약해도 주식을 받을 수 있었다. 10주 청약에는 32만 5,000원(공모가 6만 5,000원×5주)만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는 않은 편이다. SK증권은 10주 청약 시 2~3주를 받았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는 1~2주,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은 0~1주를 랜덤 방식으로 배정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3월 18일 상장하는데, 장외주가가 20만 원 선이라 주당 13만 원 안팎의 차이가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추천 상품 중에 추가연계증권(ELS)이란 것이 있다. 코스피200이나 S&P500 등 지수가 반 토막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연 5~7%의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저금리 때문에 투자할 만한 예·적금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주식 직접투자가 무서운 재테크 초보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전화하는 용도로만 쓰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제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됐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집도 본다. 스마트폰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시대다. 뿐만 아니라 정보도 얻고, 관계도 유지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일상을 확인하거나 안부를 묻는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건지, 삶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지되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취미 생활도 스마트폰을 통해 즐길 수 있다.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당연하고 OTT에 접속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음악도 듣고, 책도 읽을 수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보고, 듣고, 읽는 낙을 모두 섭렵할 수 있다. 매월 저마다의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적정 요금만 결제하면 스마트폰이 변신한다. 극장이나 TV가 되기도 하고, MP3가 되기도 하며, 전자책이 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혼자 놀기도 수월한 시대다.

지금은 구독 서비스 시대

‘넷플릭스’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넷플릭스’ 이전에도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디바이스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는 있었지만, 월정액으로 플랫폼 내에 있는 모든 작품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성공 이후로 수많은 신생 OTT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제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즐긴다는 건 보편적인 경험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새로운 형식의 구독 서비스를 소비하게 만드는 진입로 같은 역할을 했다.

전자책 서비스의 성장은 출판계의 불황을 염두에 뒀을 때 아이러니한 결과다.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는 진단에 반문하는 새로운 처방과도 같다. 책을 구매한다는 건 책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을 구매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책을 읽는다는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 같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단행본마다 개별적으로 전자책을 구매해서 단말기에 보관해야 했던 기존 전자책 시스템과 달리 서점에서 책을 읽듯이 원하는 책을 골라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간편하고 수월하다.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듣는다’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활자를 읽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종이책을 구매해서 보는 건 성가시다. 책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버릇이 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건 쉬운 일이다.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본다는 것도 일단 듣는다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괄호처럼 안고 있는 경험이다. 그런데 만약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게 만든다면?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디오북이다.

어쩌면 앞으로 ‘읽다’가 아닌 ‘듣다’라는 말로 책의 감상을 물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책을 읽는 대신 듣는, 오디오북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오디오북 서비스 업체 ‘월라’는 최근 2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대단한 화제를 모았다. 일찍이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에서도 오디오북 서비스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며 출판사에서조차 종이책 출간과 함께 오디오북을 함께 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오디오북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디오북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인 이상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면 듣기가 어렵다. 마치 탁한 불빛 아래 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만큼 좋은 목소리를 가진 성우들은 오디오북 제작 과정에서 1순위로 꼽히는 인재들이다.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가진 배우들도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며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김태리’가 읽어주는 <오만과 편견>이나 ‘이제훈’이 읽어주는 <노르웨이의 숲> 등, 유명 배우들의 ‘꿀보이스’로 책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마트폰이라는 언어의 광장

한편에서는 ‘클럽하우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디오북을 이야기하다 별안간 ‘클럽하우스’를 운운하는가 싶은 이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클럽하우스’란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댄스 플로어가 자리한 클럽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오디오 서비스 기반의 신생 SNS ‘클럽하우스’를 말하는 것이다. 아직까진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아이폰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베타 서비스 기간이지만 이미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달한다고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끈 건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세계적인 유명인사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란 점이었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들이 연이어 ‘클럽하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어당겼다. ‘클럽하우스’는 영상이 아닌 음성 기반 서비스란 점에서, 기록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휘발되는 SNS라는 점에서 ‘신박한’ 주목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온전히 각자의 세계에 몰입하는 시대로 들어선 것 같았지만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 보이지 않는 언어의 광장을 찾아간 것이다.

‘오디오북’과 ‘클럽하우스’의 유행이 얼마나 지속되는 흐름을 이어갈지는 몰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 같진 않다. 책을 읽는 세대와 책을 듣는 세대의 차이가 책이라는 형태를 어떻게 규정하는 결과로 다를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식의 보고이자 유희의 산물인 책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만 같다. 그리고 아무리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해도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나누는 즐거움 역시 인간의 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클럽하우스’가 증명하는 것 같다. 결국 보고 읽은 만큼 듣고 말하고 싶은 법 아니겠는가.

Health Infographics

100세까지 똑똑하게, 두뇌 건강 이야기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쓴다. 깨끗한 산소를 이곳에서 가장 먼저 태운다.
탄수화물 가운데 순수한 포도당만을 골라서 사용한다. 바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두뇌다.
모든 감각과 신경계를 통솔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뇌 건강은 곧 백세 시대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알츠하이머병

- 정의**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
- 원인** 유전 요인 및 노화로 인한 뇌세포 손상
- 증상**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 저하, 성격 변화, 수면 장애 등
- 치료** 기능 저하 및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 치료

파킨슨병

- 정의** 대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만성적인 진행성 퇴행성 뇌 질환
- 원인** 환경·유전 요인, 노화,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단백질 처리 기능의 이상
- 증상** 손발 떨림, 근육 경직, 균형을 잡기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짐
- 치료** 약물 치료, 뇌 심부 자극술, 장애 개선을 위한 재활 치료

뇌출혈

- 정의** 뇌의 동맥이 터져 뇌 속에 혈액이 넘쳐흐르는 상태
- 원인** 고혈압증, 백혈병 등 혈액 질환, 중앙-외상-매독 등
- 증상** 의식장애, 구토, 안면 홍조, 우반신의 운동마비
- 치료** 부종 진정, 뇌 순환을 회복시키는 주사와 약물 치료

두통

- 정의** 이마에서부터 관자놀이, 후두부, 뒷목 등을 포함하는 부위의 통증
- 원인** 스트레스와 피로 등 불규칙한 생활 습관부터 혈관-조직 이상까지 다양
- 증상**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
- 치료** 대부분 진통제로 증상이 경감되나 뇌척수액 검사 등 정밀 검사 필요

Healthy Guide

스마트한 나의 머리를 지키는 솔루션

눈부신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평균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늘어난 수명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뇌를 지켜야 장수는 비로소 축복이 된다.
100세까지 행복한 삶은 똑똑한 머리, 건강한 신체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올바른 식단 관리

활발한 뇌 기능을 지켜주는 에너지의 원천은 바른 식생활



Healthy Guide 01 균형 잡힌 식생활

3대 영양소와 각종 비타민, 칼슘과 철분까지 골고루 섭취해 뇌 건강 지켜요!



Healthy Guide 02 물 많이 마시기

뇌와 눈 구성성분의 90%는 물! 자주 그리고 충분히 물 마시는 습관 갖기

운동으로 치매 예방

두뇌 건강에 운동은 필수!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자주 운동하기



Healthy Guide 03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75분 이상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세계보건기구 권고)




Healthy Guide 04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독서와 명상, 달리기 등 아날로그 삶의 방식은 뇌세포 퇴화를 막아줘요

뇌 건강을 지키는 소소한 실천법


- ☑ 자주 안 쓰는 손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사용해요
- ☑ 스마트폰, 잠시 손에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 ☑ TV와 PC가 없는 '디지털 프리존'에서 쉬어요
- ☑ 손가락을 교차로 접는 등 뇌 자극 체조를 자주 해요
- ☑ 독서를 통해 다양한 사고 작용으로 두뇌를 훈련해요
- ☑ 저녁 9시 이후에는 뇌가 회복하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요

	안티
아	드론
시	의
나	이
요	를
?	

 2019년 9월 14일,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아이들 장난감 정도로 치부되던 초소형 비행체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드론과 관련된 산업의 급성장은 생활의 편리함과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드론 기술은 유인 탑승 드론을 논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주거 시설 불법 촬영과 관련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드론의 무서움은 작고 빠르며 사람의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점점 소형화되고,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올해부터는 드론 조종 자격이 4종으로 차등화 및 세분화됐습니다. 세분화는 소형 드론의 생활화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상반기 이후 여행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 사용은 더욱 빈번해지고 관련 사건·사고도 증가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지만요. 그러나 교정시설 인근이나 교정시설을 목표로 드론을 이용한 부정 물품 반입 시도 등은 충분히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족한 지식이지만 드론과 안티 드론에 관한 짧은 소견을 말해 봅니다.

 드론은 아이들 장난감처럼 귀여운 제품부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군사용 드론까지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초소형화하고 있어 드론에 대한 피해를 인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용처와 피해 사례가 누적될수록 안티 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것입니다. 과거의 드론은 주로 군용 무인기에 중점을 뒀으나 최근엔 취미용에서 상업용으로 점차 영역이 확대돼 민간용 드론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전망 등은 걸음마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드론을 통한 위협은 소형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인지하고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테러 집단이나 불법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되기 쉬울 것입니다. 국가 시설은 많은 비용으로 건축되지만 대부분의 출입문과 공중 등은 인적·물적 출입 통제나 CCTV를 통한 물적 방호에 그치고 있어 공중 보안에 매우 취약한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도 주로 CCTV와 감지기를 통한 물적 계호 위주라 공중 보안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 등 국가 시설은 콘크리트 건축물에 불과하지만, 교정시설의 경우 건축물 내에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인적·물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드론이 더욱 소형화되고 운송 능력(장거리 비행)이 향상돼 먼 곳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이라는 드론이 상용화된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개인 항공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이제 단순한 부정 물품을 넘어 유인 탑승 드론을 활용한 탈옥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담배와 같은 단순 소비성 부정 물품 반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남미에서 헬기를 통한 교도소 탈옥 사건이 발생했다는 해외 토픽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어넘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탈옥은 아직 가능성이 희박하나 부정 물품 반입 및 반입 시도 소식은 외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부정 물품 밀반입 적발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드론을 통해 마약, 스마트폰, 흥기 등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 독일,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교정시설에서 금지 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도 반입 계획을 넘어 실제로 반입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소형 드론과 저소음 드론의 등장으로 교정시설 촬영 및 부정 물품 반입도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고층형 교정시설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취약할 수 있고, 방사형 교정시설은 담배 등 부정 물품을 운동장 등 약속된 장소에 투하한 뒤 홀연히 사라지면 이를 알아채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아파트 불법 촬영 뉴스를 통해 유추해 볼 때 드론으로 교정시설 외곽 등을 불법 촬영하는 데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킹 기술이 발달할수록 백신 프로그램도 발전하듯이 불법적인 드론 사용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항하는 ‘안티 드론 기술(Anti Drone Technology)’에 대한 관심과 기술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정시설에 안티 드론 기술을 도입하는 데 대한 논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티 드론 기술은 영상 탐지, 음향 탐지, Wi-Fi 탐지, 라디오 주파수 탐지, 포획(고정형, 휴대용) 등 드론 기종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기술 도입과 활용 여부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도관은 인적·물적 계호뿐만 아니라 공중 방호까지 책임져야 하는 세상이 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재앙의 근원을 예방한다는 의미의 ‘곡돌사신(曲突徙薪)’을 기억하자는 말로 짧은 글을 마칩니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가	족	에	대	한	반	성	과		
행	복	한	가	정	을	위	한	누	우
								침	

☞ 저는 현재 교도소 내 병동 수용거실에서 수용 중인 송○○입니다. 벌써 교정시설에 수용된 지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으로 2년 정도를 보내면서 피해자분들께 피해 변제와 속죄, 그리고 누우침의 시간을 가졌지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천성 ‘근무력 증후군’에 걸렸고 희귀병 판정을 받아 잔형 기간 동안 병동에서 지내야 합니다. 전신 근육이 무력화되고 걸핏하면 심장마비와 호흡곤란 등으로 수차례 사경을 넘나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소임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교도관분들의 보살핌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사회에서는 극히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지냈는데 지은 죄가 커서인지 원인도 모르는 병을 얻고 병마와 싸우는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 마흔다섯에도 여전히 철없는 아들을 애뜻하게 기다려 주시는 홀어머니,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혼하고 혼자서 철부지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내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와 누우침을 전하고자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글을 적어 봅니다.

☞ 늘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자랑스러워해 주신 어머니와 부족한 아빠를 믿어 준 아이들과 아내, 이런 내 가족들 가슴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실망을 준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합니다. 남들같이 멋진 집도 많은 돈도 주지 못하면서 그저 매번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큰소리와 허풍으로 순간을 모면했어

도 항상 믿어 준 정말 고마운 가족입니다. 남들처럼 살아 보겠다고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펀드 투자회사에 다니면서 저의 모든 꿈과 삶은 180도로 바뀌었고 결국은 파국의 종착점인 교도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 노력은 하지 않고 주어진 능력을 과신해 벌인 모든 행위가 결국은 거짓과 허구로 점철된 펀드 투자 사기죄가 됐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의 행위로 인한 죄가 너무나 컸고 결국 한순간에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못한 저를 믿어 주고 손을 놓지 않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 수용생활을 열심히 하며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저의 작은 꿈은 병이 들어 무너지고 병동 수용거실에서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는 허황된 꿈을 좇지 않고 남은 삶은 가족들과 작은 행복을 만들며 살기 위해 마음만은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천우신조 격으로 격조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조심스럽게 재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도 멋진 집도 좋지만 그보다 멋진 것은 당신의 젊은 시절에 나를 반하게 만들었던 젊음의 패기와 거짓 없던 모습이라며, 두 아들 곁에서 늙름하게 아빠 노릇을 해 줄 것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아내에게 저는 정말 큰 빛진 만큼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죄를 지으면 인과응보의 대가로 쫓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비록 재산과 명예 그리고 건강까지도 모두 잃었지만 저에게는 끝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준 고마운 아내와 늘 “사랑하는 아들이” 하시면서 고향에서 기다려 주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덕분에 힘든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는 하루가 새롭고 희망을 갖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 각자의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끝까지 저를 믿어 주는 고마운 가족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죄의 대가를 열심히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저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시작의 문을 열다 보면 언젠가는 가족의 품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용생활을 열심히 해내겠다는 다짐과도 같은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주거지원 대상 출소자의 지원 기간 내 재범 위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②

홍명기***·공정식***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 교정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제88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audr10406@gmail.com).

*** 경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교수, 교신저자(crime0824@daum.net).

▶ 접수일(2020. 10. 14.), 심사일(2020. 12. 23.), 수정일(2020. 12. 27.), 게재확정일(2020. 12. 28.)

VI. 분석결과

1. 기술통계

1) 지원사업 시작 시점부터 지원 기간 내 재범까지 걸린 기간
 지원사업 시작일부터 지원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하여 지원이 종료된 일까지의 걸린 시간을 3개월 단위¹⁾로 분석한 것은 <표 3>과 같다. 지원사업 시작 이후 3개월 내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하는 대상은 3명(3.45%), 6개월 내에는 4명(4.60%)이었으나, 9개월 내에는 13명(14.94%)으로 재범으로 인하여 지원에서 이탈한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12개월 내에는 다시 4명(4.60%), 그리고 18개월에는 5명(5.75%)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21개월(8명, 9.20%), 24개월(7명, 8.05%)에 다시 증가하는 등 36개월까지는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자의 추세가 소폭 증가, 소폭 감소의 형태를 띠었다. 그 이후 39개월부터 117개월까지는 3명에서 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주거지원이 이루어진 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러 지원에서 이탈이 된 대상자의 수는 24명, 전체 중 27.59%이며, 2년 이내에는 55.17%(48명)가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대상자의 절반이 2년 이내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지원 시작한 후 초기에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지원사업 시작일부터 지원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종료일까지 걸린 시간

개월	빈도	%	누적 빈도	누적%	개월	빈도	%	누적 빈도	누적%
3	3	3.45	3	3.45	45	1	1.15	69	79.31
6	4	4.60	7	8.05	48	2	2.30	71	81.61
9	13	14.94	20	22.99	51	2	2.30	73	83.9
12	4	4.60	24	27.59	54	2	2.30	75	86.2
15	4	4.60	28	32.18	57	2	2.30	77	88.5
18	5	5.75	33	37.93	60	2	2.30	79	90.8
21	8	9.20	41	47.13	63	1	1.15	80	92.0
24	7	8.05	48	55.17	66	1	1.15	81	93.1
27	1	1.15	49	56.32	69	2	2.30	83	95.4
30	6	6.90	55	63.22	72	1	1.15	84	96.6
33	1	1.15	56	64.37	102	1	1.15	85	97.7
36	6	6.90	62	71.26	111	1	1.15	86	98.9
39	3	3.45	65	74.71	117	1	1.15	87	100.00
42	3	3.45	68	78.16	전체	87	100.00		

2)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경력에 대한 기술통계
 전체 주거지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범죄경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표 4>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전체 대상자 중

1) 후술할 cox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기간은 '일' 단위로 측정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기간에 따른 사건의 발생 빈도를 요약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기간을 묶어서 살펴보았다.

86%는 남성, 14%는 여성으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22살부터 최대 83살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52.18살(SD=9.56)로 확인되었다. 건강상태의 경우 전체 중 85%가 건강이 양호하였으며, 15%는 질병 혹은 장애 등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0.46%(1,58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대학교 재학 이상 19.50%(614명), 중학교 졸업 이하 15.97%(503명), 전문대 졸업 이하 6.73%(212명),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포함) 7.34%(2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2범 이상인 대상자는 40%로 초범인 대상자(60%)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죄를 저지른 대상자가 33.19%(1,0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기타(18.70%), 절도(8.70%), 폭력(8.00%), 살인(5.72%), 교통특례법 위반(5.65%), 향정(5.37%), 강도(4.92%), 횡령(4.89%), 성범죄(4.86%) 순이었다.

<표 4>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범죄경력에 대한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0.86	0.35	0	1
연령	52.18	9.56	22	83
건강상태	0.85	0.35	0	1
전과(2범 이상)	0.40	0.49	0	1

	빈도	%
교육수준		
초졸	231	7.34
중졸	503	15.97
고졸	1,589	50.46
전문대졸	212	6.73
대재 이상	614	19.50
범죄유형		
살인	180	5.72
강도	155	4.92
성범죄	153	4.86
절도	274	8.70
폭력	252	8.00
횡령	154	4.89
사기	1,045	33.19
향정	169	5.37
교통특례	178	5.65
기타	589	18.70

2) 위험비란 어떠한 기간 내에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h_t = \Pr(T=t|T>t-1) = \Pr(T=t|T \geq t)$

2. 지원사업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에 대한 위험비(hazard-ratio) 분석

다음으로 <표 5>는 주거지원사업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에 대한 위험비(2)를 분석한 결과이다. Death는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건의 수(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를 의미하며, Lost는 기간 내 중도절단된 자료의 수를 의미한다. Hazard ratio는 위험비로 주거지원이 시작된 이후부터 3개월 단위마다 해당 기간에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3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위험비를 살펴보면, 7-9개월 사이에 위험비가 0.004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19-21개월(0.0033)과 22-24개월(0.0030)의 위험비가 다른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백분위로 표현하면 7-9개월 동안에 100명 중 0.46명이, 19-21개월 동안에는 100명 중 0.33명, 22-24개월 동안에는 100명 중 0.30명이 재범으로 지원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적 위험비(Cum. Failure)를 보면, 69개월까지 0.0391까지 상승하다가 72개월부터는 0.0400에서 0.046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지원이 시작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장래에도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5> 지원사업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에 대한 위험비 분석 결과

개월	Beg. Total	Death	Lost	Cum.Failure	S.E	Hazard ratio
3	3149	3	194	0.001	0.0006	0.001
6	2952	4	93	0.0024	0.0009	0.0014
9	2855	13	123	0.007	0.0016	0.0046
12	2719	4	90	0.0085	0.0017	0.0015
15	2625	4	101	0.01	0.0019	0.0015
18	2520	5	77	0.012	0.0021	0.002
21	2438	8	105	0.0153	0.0024	0.0033
24	2325	7	89	0.0184	0.0026	0.003
27	2229	1	125	0.0188	0.0027	0.0004
30	2103	6	70	0.0217	0.0029	0.0029
33	2027	1	59	0.0221	0.0029	0.0005
36	1967	6	88	0.0252	0.0032	0.0031
39	1873	3	72	0.0268	0.0033	0.0016
42	1798	3	69	0.0284	0.0034	0.0017
45	1726	1	66	0.029	0.0035	0.0006
48	1659	2	102	0.0302	0.0036	0.0012
51	1555	2	86	0.0315	0.0037	0.0013
54	1467	2	74	0.0329	0.0038	0.0014
57	1391	2	54	0.0343	0.0039	0.0014
60	1335	2	67	0.0358	0.0041	0.0015
63	1266	1	57	0.0365	0.0041	0.0008
66	1208	1	57	0.0374	0.0042	0.0008
69	1150	2	50	0.0391	0.0044	0.0017
72	1098	1	68	0.04	0.0045	0.0009
75	1029	0	57	0.04	0.0045	0

개월	Beg. Total	Death	Lost	Cum.Failure	S.E	Hazard ratio
78	972	0	53	0.04	0.0045	0
81	919	0	35	0.04	0.0045	0
84	884	0	49	0.04	0.0045	0
87	835	0	66	0.04	0.0045	0
90	769	0	44	0.04	0.0045	0
93	725	0	30	0.04	0.0045	0
96	695	0	56	0.04	0.0045	0
99	639	0	47	0.04	0.0045	0
102	592	1	32	0.0416	0.0048	0.0017
105	559	0	35	0.0416	0.0048	0
108	524	0	58	0.0416	0.0048	0
111	466	1	34	0.0438	0.0052	0.0021
114	431	0	52	0.0438	0.0052	0
117	379	1	41	0.0464	0.0058	0.0026
120	337	0	73	0.0464	0.0058	0
123	264	0	77	0.0464	0.0058	0
126	187	0	70	0.0464	0.0058	0
129	117	0	36	0.0464	0.0058	0
132	81	0	15	0.0464	0.0058	0
135	66	0	19	0.0464	0.0058	0
138	47	0	12	0.0464	0.0058	0
141	35	0	7	0.0464	0.0058	0
144	28	0	5	0.0464	0.0058	0
147	23	0	5	0.0464	0.0058	0
150	18	0	4	0.0464	0.0058	0
153	14	0	5	0.0464	0.0058	0
156	9	0	2	0.0464	0.0058	0
159	7	0	3	0.0464	0.0058	0
162	4	0	2	0.0464	0.0058	0
165	2	0	1	0.0464	0.0058	0
168	1	0	1	0.0464	0.0058	0

3. 콕스 회귀분석(cox regression)

주거지원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에 대한 cox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모형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범죄경력인 전과, 범죄유형(기준: 향정)을 투입한 것으로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R $\chi^2(17)=82.81$, $p<0.001$).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이 양호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범을 저질러 지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14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상태와 재범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들이 존재한다. Link, Ward와 Stansfield(2019)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회복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연구(Bauld, et. al., 2005)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한계는 범죄를 저지

르는데 방해물이 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표면적으로 후자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Wallace and Wang, 2020)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상태 변수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경력 중에서는 전과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HR=3.298, $p<0.001$). 초범이 '0', 2범 이상이 '1'이기 때문에, 전과가 2범 이상인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지원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러 지원에서 이탈될 위험이 229.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과의 횟수와 재범 가능성의 정(+)적인 관계는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검증되어왔다(조윤오, 2016). 또한 범죄 유형의 경우 향정(마약)관련 범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유형 모두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위험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정(약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대상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 비해 재범을 저질러 지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Huebner and Berg, 2011)에서도 범죄 유형에 따라 재범률에 차이를 보였으며, Spohn와 Holleran(2002)에 의하면 마약사범이 마약과 관계없는 범죄자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더 빨리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거지원 대상자의 지원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에 대한 콕스 회귀분석 결과

	Hazard Ratio	S.E.	z
성별	1.333	0.587	0.650
연령	0.988	0.012	-0.950
건강상태	2.498	1.003	2.280 *
교육수준(중졸)			
초졸	0.986	0.401	-0.040
고졸	0.841	0.226	-0.650
전문대졸	0.405	0.305	-1.200
대재 이상	0.805	0.330	-0.530
전과(2범 이상)	3.298	0.896	4.390 ***
범죄유형(향정)			
살인	0.160	0.120	-2.430 *
강도	0.376	0.179	-2.060 *
성범죄	0.081	0.083	-2.450 *
절도	0.521	0.180	-1.890 †
폭력	0.316	0.134	-2.710 **
횡령	0.347	0.224	-1.640
사기	0.273	0.099	-3.580 ***
교통특례	0.163	0.102	-2.900 **
기타	0.247	0.096	-3.590 ***
모형 적합도 (gof)	N of subjects= 3,149 N of failure= 87 Log Likelihood= -621.2786 LR $\chi^2(17)=82.81***$		

†p<0.01, *p<0.05, **p<0.01,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주거지원 대상자의 지원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간에 따른 재범으로 인한 이탈(종료)에 대한 위험(생존)비와 재범을 설명하는 기존 요인들이 주거지원 대상자의 재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재범이라는 종속변수의 특징과 분석자료의 형태를 고려하여 연속시간 생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cox 회귀분석 결과 건강상태, 전과, 범죄유형이 지원사업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의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149.8%, 전과횟수가 2범 이상인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22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의 경우 이전에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는 향정 관련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 비해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47.9%~91.9%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분석 대상자 3,149명 중 재범을 저질러 지원에서 이탈한 대상자는 87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였다. 이는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법무연감>과 수치를 단순 비교하였을 때, 주거지원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전체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범률은 24.3%였고, 2015년에는 3년 이내 21.4%로 감소하다가 2019년 출소자들의 3년 이내 재범률은 26.6%였다.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시작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을 저지른 대상자만을 고려하였을 때 3년 이내에 약 71%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원 초기에 집중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의 전체 기간의 누적 위험비가 0.0464(100명 중 4.6명)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원사업이 출소 후 사회에서 배제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출소자들을 지원하여 재범을 방지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범의 억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의 목적과 효과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관·제도에 대한 정당성은 시민들의 협조 혹은 협력 이끌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Tyler, 2006).

두 번째로, 생존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재범을 저질러 지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체와 정신적 건강 상태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건강상태에 대한 척도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된 자료가 아닌 상담 혹은 자기기입식으로 된 자료를 이분화하여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

강상태에 대해서 최근 국외의 연구에서는 교도소 내의 건강악화는 출소 이후에도 출소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한계에 직면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즉 취업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태의 경우 우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출소자는 그렇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Wallace and Wang, 2020)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주거지원 대상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전과 2범 이상의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재범을 저질러 지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로는 향정 관련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가 타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 비해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범죄경력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유형화하여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더 세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거지원 대상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생존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의 위험을 계산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질적 연구를 통해 주거지원사업의 기준과 과정 등을 정교화하였다면,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주거지원사업 대상의 재범 위험과 그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탐색적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떠한 사업의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효과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거지원 대상의 재범률을 <법무연감>의 재범률과 수치상으로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방법론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떠한 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 내에서 재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이 동일한 대상자들을 매칭하여 결과(재범)를 분석하는 방법인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혹은 역확률가중(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IPW)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갱생보호사업과 주거지원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변수(혼인상태, 지원 전과 지원 후의 가족의 거주유형 등)들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을 설명하는 모형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재범의 위험을 높이는 범죄경력 변수로 논의된 복역기간, 직업유무, 처분유형 등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 점도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주거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오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평가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자들은 지원 시점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원 시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재범에 대한 위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주거지원사업의 명확한 효과성과 재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은 지면 한계상 생략합니다.

교정본부 2020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도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이란 비전 아래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카드로 읽는 교정'에서는 교정본부의 2020년 주요업무 성과와 함께 2021년 추진계획을 소개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성과

1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강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연계, 미성년 자녀에게 학업·주거·치료·상담 등 지원
-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 동화책과 함께 전달하는 '엄마의 목소리' 시행
- 자녀와의 유대관계 강화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어린이집 형태의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조성



2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개발

- 교정본부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용 가능한 지능형 채팅봇을 개발해 민원서비스 향상

2020년 주요 업무 성과

3 병역의무와 인권이 조화된 '대체복무제' 시행

- 현역병 등과의 형평성 및 인권을 고려한 복무방안 마련

4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형집행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수용자 인권증진 및 교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추진계획

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유형별 치료프로그램 시행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 알코올·마약 등 「중독사범 치료공동체」 도입
- 「재범 고위험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이수명령 확대 대비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개별법에서 정한 이수명령 대상자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인지·정서·행동 문제 개선 프로그램 개발



2021년 추진계획

2 수형자 사회복귀 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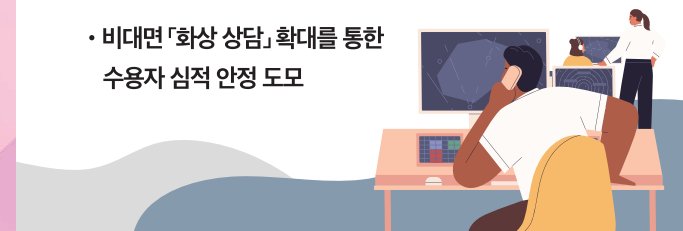
- 취업매칭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강화
- 사회복귀 정착자금 마련
- 장기 수형자 사회적응훈련 강화
-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사회적 지지기반 강화



2021년 추진계획

3 스마트 교정시스템 구축

-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교정시설 조성
 - 수용자 스마트밴드, 활력징후 감지 레이더, 무소음 이동형 CCTV 개발
- 모바일 수용관리시스템 개발로 현장 중심의 실시간 업무환경 구축
- 접견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 일반 접견,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을 통합한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및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
- 비대면 「화상 상담」 확대를 통한 수용자 심적 안정 도모



교정본부는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며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정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와 법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교정 NEWS

교정 4월호

법무부 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1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해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성공적으로 격리 해제시키는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현장 직원과의 간담회와 수용자 화상면담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윤경희 청송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청송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1년 제1차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3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오영근 위원장 등 외부위원 9명과 신경우 교정정책단장 등 내부위원 3명이 참석해 대체복무요원 겸직 허용 여부와 4급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 결과 현역병(합숙)은 겸직·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대체복무요원의 겸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4급 대체복무요원이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화상가족접견 전국 교정기관 확대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전면 중단에 따른 화상가족접견이 지난 4월 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확대 시행됐다. 이번 화상가족접견 확대 시행은 수용자와 가족 간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가족관계 유지·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가족접견은 PC, 웹캠 등 화상회의 관련 장비가 설치된 가족 접견실에서 수용자 1명당 4명 이내의 가족과 진행된다. (일과시간 중 1회, 40분 기준)

교정본부 추진정책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수립



지난 3월 19일 교정본부는 추진정책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반기 1회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교정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 후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 새롭게 오픈한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에 토론마당 등의 소통 게시판을 신설·운영해 게시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셋째, 매주 정책 홍보 소식지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팸플릿으로 제작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직원들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정책 설명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 교정공무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수립·시달

지난 3월 30일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교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시달했다. 계획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 내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대체복무요원 등 총 16,770명 중 접종 동의자 16,001명을 대상으로 4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으며, 2차 접종은 6월 21일부터 2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노용비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3월 15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가졌다. 이경식 청장은 전입 직원들에게 “전입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근무하길 바란다”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장 수여식 개최

서울구치소는 3월 11일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유병철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모범적인 근무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달의 공무원과 교정사고 방지 유공 직원에게 표창장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안양교도소는 3월 9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최재영 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코로나19 격리 직원 물품 키트 지급 방안 마련

수원구치소는 3월 10일 코로나19 대응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물품 키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

다. 물품 키트는 음식물, 생활용품, 방역용품 등 총 12종의 물품으로 구성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또는 의심 증상 발현 등 격리 직원 발생 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백선일 코로나19 후유증 극복 심리 상담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3월 19일 코로나19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심리치료과의 지원을 받아 심리 상담을 실시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심리 상담, 위기 상담, 심층 상담을 점차 확대하고, 고위험군 수용자 대상 외부 전문 상담을 연계해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화이트데이 선물 증정

인천구치소는 3월 14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화이트데이를 맞아 여직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한 여직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직원이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챙겨 주는 분위기 덕분에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마스크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3월 22일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로부터 KF94 마스크 10,000매를 기증받았다. 류기현 소장은 “도움을 주신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16일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에서 방문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을 기피하

는 현상이 심화돼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가운데,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서울지방교정청장, 의정부교도소 현장 점검

3월 16일 이경식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했다.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련해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대응 매뉴얼 등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대체복무·코로나19 방역 유공 직원을 포상했으며,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감사장 전달

여주교도소는 3월 9일 수용자 마스크 4,000매를 기증한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에 감사장을 전했다. 남준락 소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마스크를 기증해 준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성폭력 사범 심리 치료 프로그램 자문회의 개최

3월 23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는 고위험 성폭력 사범 비대면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문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교정본부 이희정 심리치료과장을 비롯해 노일석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송원영 건양대 교수 등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원격 강의 등 비대면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등을 논의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실시

춘천교도소는 3월 16~22일 구내 취창업교육실에서 출소 예정자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의 협조를 받아 화상으로 진행됐다. 출소 예정자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세계 물의 날’ 기념, 하천 정화 활동 실시

원주교도소는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물의 소중함과 물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원주시에서 주관하는 하천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관내 유관 기관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향상시켜 보람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원주천 일대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강릉교도소는 3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종관 소장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비대면 자동 열감지 카메라 설치

영월교도소는 3월 10일 비대면 자동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열감지 카메라는 민원실과 정문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고 접견을 오는 민원인 등 외부인들이 체온 측정에 혼선이 없도록 안내 배너도

마련해 직원과 비접촉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손 소독제를 옆에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양인호 속초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3월 18일 보안청사 앞 광장에서 속초소방서 및 영랑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 훈련은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후 최초로 실시된 유관 기관 합동 훈련이다. 이번 훈련으로 자위소방대 임무를 숙지하고 시설 내 소화기구 사용 방법을 숙달할 수 있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3월 24일 평택지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을 부여해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소망교도소 / 8직급 정은혜 소망교도소 10주년 백서 발간

소망교도소는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백서를 발간하고 3월 3일 전국 교정기관과 유관 기관 등에 이를 배부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백서 발간을 계기로 소망교도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코로나19 유입방지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3월 23일 백신 접종 등 교정기관 코로나19 유입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소속

교정기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방역 태세를 재점검하고,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는 등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비대면 소통 창구 마련

대구교도소는 3월 5일 직원 간 공감·감사하는 마음을 전파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감사 게시판 및 칭찬함을 설치했다. 감사 게시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통 방안으로 직원 간 감사하는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 설치했다. 또한 칭찬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직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칭찬함을 설치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 실시

부산구치소는 3월 10일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요령 습득을 위해 외부 방역 전문가 초빙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개인 보호복(레벨 D) 착용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부산구치소는 앞으로도 격주 1회 외부 방역 전문가 초빙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방역용품 기증

구세군 자선냄비본부는 3월 3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7,000매와 손 소독제 3,000개를 기부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장만희 사령관은 “사회의 작은 손길을 모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수용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 실시

창원교도소는 3월 12일 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는 주제로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과 임종택 교사를 강사로 선정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자 발생 시 상황별 대응 방법과 방호복의 올바른 착·탈의 방법 등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교정협의회 운동용품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3월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교화 행사 및 사회적 처우가 중단된 수용자들의 안전한 운동 문화 정착을 위해 족구공 30개를 기부했다. 박영호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수용자가 많다. 이들이 건강과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부패 취약 분야 공무원 청렴 교육 실시

포항교도소는 3월 11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알선·청탁 등의 부패 취약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행동강령 책임관인 총무과장과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명성 교위를 강사로 선정해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3월 23일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자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확진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능력 및 유관

기관 협조체계 점검을 통한 직원들의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진주교도소는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포인트존 스티커 설치
대구구치소는 3월 10일 구치소 주변 보행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포인트존 스티커를 설치했다. 주·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에 형광 재질의 안내 스티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생활방역전담반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조치를 훈련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야간 긴급 출동 훈련 실시
안동교도소는 3월 2일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야간 긴급 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야간

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법무부 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월 1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추가 감염 없이 성공적인 격리 해제를 이뤄낸 노고를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기존의 중경비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까지 잘 관리해 줘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김천중앙고등학교 교장 방문
김천중앙고등학교 박복로 교장은 3월 18일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해 수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차재성 소장은 "김천중앙고 선생님들의 열정 덕분에 수용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부조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직원, 민원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부조리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부패 척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북돋는 등 교정 청렴 운동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익명 게시판 운영 및 사진 공모전 실시
울산구치소는 직원 간 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3월 23일부터 익명으로 작성 가능한 소나기(소통, 나눔, 기쁨)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3월 31일까지 직원 상호 간 이해도 제고 및 소속감 향상을 위해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로 직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경주 알영로타리클럽 화장품 기증
경주교도소는 3월 15일 경주 알영로타리클럽으로부터 여자 수용자들을 위한 스킨&로션 50세트를 기증받았다. 박원흠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 시기에 기증을 결정해 주신 경주 알영로타리클럽 김현숙 회장님과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교도소 직원 일동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교정협의회 라면 기증
통영구치소는 3월 11일 통영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라면 1,400개를 기증받았다. 김형길 회장은 "시설 내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밀양구치소 / 교도 한승훈

부북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3월 17일 관내 자매결연 학교인 부북초등학교를 방문해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부북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가 좋은 어린이 5명에게 장학금 각 20만원과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스마트 교정시설 조성 현장 실사
상주교도소는 3월 4일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수용관제시스템' 시범 실시 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 나선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추진 사업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 교정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성규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3월 19일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겨우내 쌓여 있는 낙엽과 청사 출입구, 청사 울타리 외곽 등 주변 쓰레기를 제거했으며, 각 과 사무실을 정돈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화이트데이 선물 증정
대전교도소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3월 11~12일 전 직원에게 초콜릿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응 등 수용관리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됐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집중 인성 교육 입교식 개최
청주교도소는 3월 15일 형 확정 수형자 18명을 대상으로 집중 인성 교육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집중 인성 교육은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56시간 기본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김재익 소장은 "교육 전후 효과성을 분석해 재범 방지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3월 5일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을 개최했다. 천안교도소는 이날 2021년 제2기 대체복무 교육생 48명을 대전교도소 교육센터로부터 인솔했다. 이로써 48명은 천안교도소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려 대체복무요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직원 행복 나눔 행사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3월 12~15일 직원 행복 나눔 행사를 개최해 사랑과 행복 등 다양한 간식을 직원

들에게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효율적 수용 관리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마련됐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공주교도소는 3월 5일 일반임기제공무원(기술서기관, 의사)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했다. 채용점검위원회는 내·외부위원 각 1명으로 구성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점검을 받았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전자총격기 사용법 직장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3월 15일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보안 장비인 전자총격기(테이저 건)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안 장비의 적절한 사용 능력을 배양해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홍성교도소 / 교사 조경환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홍성교도소는 3월 16일 정문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세종·충남 혈액원과 협조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헌혈은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진행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천안개방교도소 활성화 T/F 회의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1일 천안개방교도소 활성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과 시설 내 처우

확대 등 천안개방교도소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김승인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3월 3일 서산시보건소 감염관리팀장을 초빙해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상으로 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주의 사항 등을 주제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논산지소는 3월 15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권정기 공업서기보는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논산지소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권정기 씨는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논산지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지방청 혁신 알고리즘(RIA) 운영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3월 10일과 26일 지방청 혁신 알고리즘 회의(RIA)를 개최했다. RIA 회의는 지방청 기능과 운영 실태를 점검 및 검토해 청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 RIA 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개최될 예정이며 소통 활성화 및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도소 / 교위 박재석

하이트데이 선물 증정

광주교도소는 3월 12일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여직원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수제 초콜릿을 선물해 주셔서 좋았고, 양성평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청렴 캠페인 및 봉사 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3월 15일 청렴 캠페인 및 교도소 주

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공직 사회의 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변 환경 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표어공모전 시상식 개최

순천교도소는 3월 1일 청렴·적극행정·갑질을질·음주운전 근절 표어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16일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표어공모전에는 총 73편의 표어가 공모돼 각 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관현국

교정협의회 축구공 기증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는 3월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용자를 위해 축구공 40개를 기부했다.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축구공을 준비해 전달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대우

군산사회복지장학회 마스크 기증

군산사회복지장학회는 3월 8일 군산교도소에 2만 장의 KF94 마스크를 전달했다. 김기봉 이사장은 “수용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용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제주교도소는 3월 23일 제주혈액원의 협조로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악화된 혈액 수급 상황에서 실시해 그 의미가

더 깊었다. 서호성 소장은 “따뜻한 교정인의 모습을 조용히 드러낸 작은 영웅들이다”라며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유관 기관 합동훈련 실시

장흥교도소는 3월 18일 출정 중 수용자 도주 사고 발생 대비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광주지방방법원 장흥지원 및 장흥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법원 구내 및 주변 도주 취약 개소 점검, 주요 예상 도주로 파악 및 숙지 등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됐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군부대 합동 시설방호 전술도의 실시

해남교도소는 3월 24일 인근 군부대 대대장 등 3명과 함께 교도소 내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시설방호에 관한 계획 등을 논의하는 군부대 합동 시설방호 전술도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상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 대응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중요 시설방호 임무수행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수용자 심성 순화를 위한 벽화 작업 실시

정읍교도소는 3월 12일과 19일 수용자의 심성 순화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벽화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정읍교도소의 요청에 의해 김현우 화백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뤄졌다. 벽화는 보안청사 내·외벽 및 여성 수용동 작업장에 그려졌으며, 기존의 차갑고 밋밋한 이미지에서 보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소식이 오다
● 모범 공무원 소개



서울남부교도소
공업주사 박광섭



울산구치소 교도 박경범



대전교도소 교사 김정대



전주교도소 교위 권성철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

박광섭 공업주사는 복지와 기계 설비 업무 담당자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소방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지하 파트 내에 설치된 배수, 냉난방 설비 등을 점검해 누수와 동파 관련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다. 청사동, 보안동, 대강당 등에 대해서는 사무실별 적정 냉난방 온도에 맞춰 공조 설비를 조치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꼼꼼한 수용자 물품 검사로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차단

박경범 교도는 민원과 영치품(부) 근무자로서 2월 17일 오후 1시 30분경 입소한 지 얼마 안된 마약류 수용자의 정밀 물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방 밑바닥 귀퉁이 틈새에 끼여 있던 비닐 팩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울산지검 마약수사실로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2월 22일 오후 3시 55분경 마약류임을 확인했다. 이처럼 박경범 교도는 평소 꼼꼼한 근무 자세로 교정시설 내 부정 물품 반입을 엄밀히 차단하고 있다.

입소 예정자 도주 시 즉각 대처 및 수시 순찰로 교정사고 예방

김정대 교사는 3월 8일 신입 수용자 입소 절차를 위해 검찰 호송 차량이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 대기하던 중 입소 예정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체포해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그는 평소에도 원칙에 입각한 근무 자세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수시로 순찰하며 자살, 폭행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수용자 고충 해소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 지원으로 수용 질서 확립

권성철 교위는 보안과 보안4부 미결 상담 근무자로, 수용자가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수용자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상담 능력으로 신입 수용자 및 문제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이끌고 있다. 또한 수용자에게 기초 질서 준수와 독서를 적극 권장해 수용 질서 확립에도 기여했다.

여권 미소지 형기 종료 외국인 수용자 여권 발급 사전 신청



군산교도소 교위 전해영



문제점 형기 종료된 외국인 중 여권 미소지자는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개선 교도관이 여권 발급을 사전에 신청함으로써 외국인 보호소에 대기하지 않도록 조치

행복 브릿지 영상 편지



해남교도소 교사 임재원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접견 등 사회적 프로그램 중단

개선 희망자에 한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족 안부 영상 제작, 지정된 가족에게 전송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발 급



①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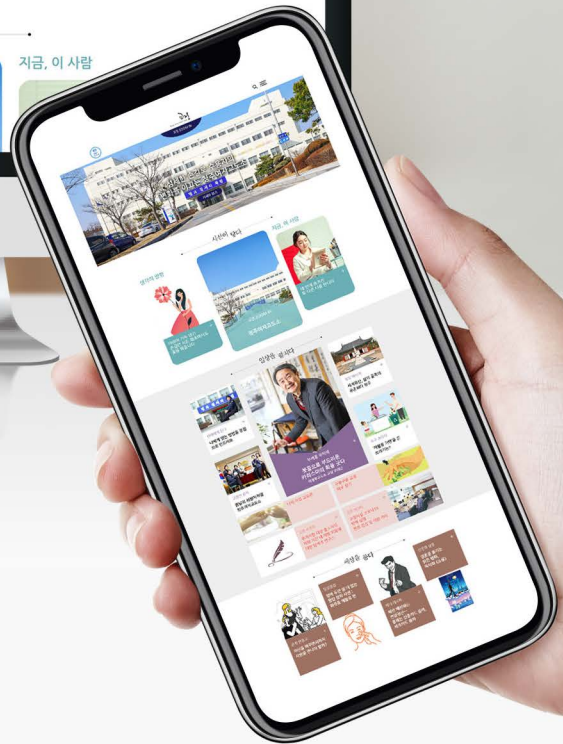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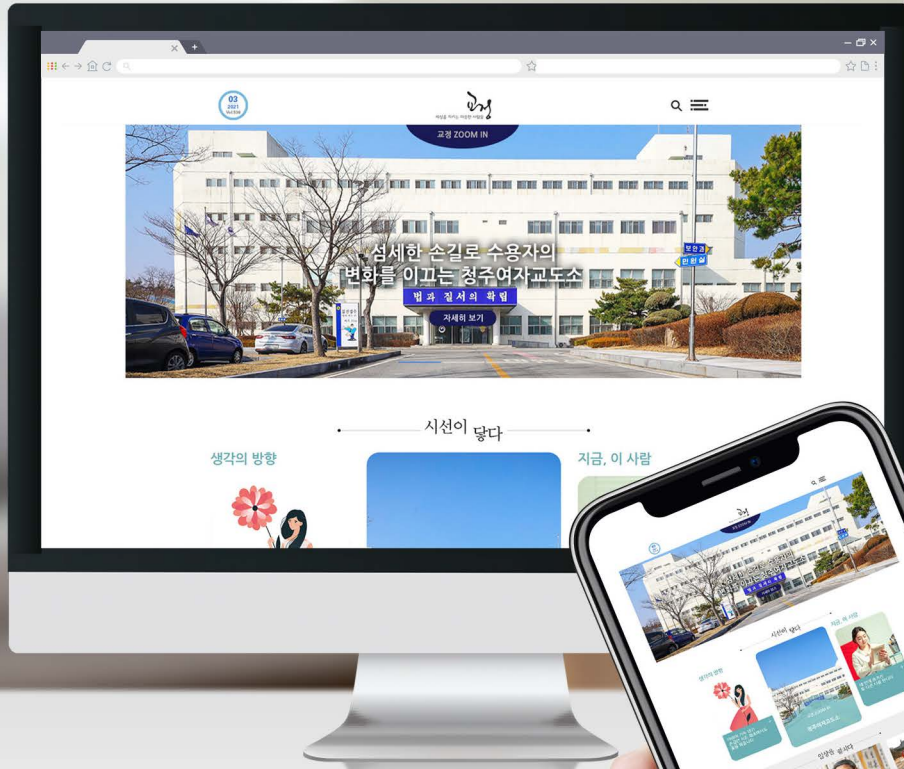
이 용

방문날짜	방문시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2. 19.	14:15	✓	종로구	12가34나

②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기재!

* 휴대전화번호도 기재 가능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꽉 채워진 월간 『교정』 웹진을 만나보세요!



교정공무원의 문화·교양 증진을 위한
월간 『교정』은 웹진과 앱으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월간 『교정』 웹진과 앱을 통해 생생한 교정본부 소식과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진과 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진]



Webzine

[구글플레이]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Download on the
App Store